

광주지역 장학재단 저금리 직격탄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광주 지역 장학재단들이 저금리의 탓에 걸려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적립해놓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이 급격히 줄면서 장학금 지급액과 수혜대상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광주시 (재)빛고을장학재단과 각 자치구 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장학재단이 지원한 지난해 장학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었고, 지원 학생 수도 25%나 감소했다.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전 결정된 것이어서 예금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운영상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 불안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이전 해에 비해 수혜대상은 14명, 금액으로는 1160만원을 추가로

**기금 이자수익 크게 줄어
지원액 10%·지원수 25% ↓**

**교육청 등 관련기관
타개책 함께 모색해야**

늘었던 빛고을장학재단은 벌써 고민이다. 이 재단은 출연자산(기본자산 54억원)을 계약 기간 1년3개월 조건에 광주은행에 예치, 기준보다 다소 높은 2.7%의 이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9월에는 금리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학금 지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연금 56억원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북구장학회도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이자율로 고심하고 있다. 줄어드는 이자 수익

탓에 지난해 장학금 지원 학생 수를 9명이나 줄여야 했다. 광주동구인재육성장학회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장학생 수와 지원액을 전년보다 30%가량 줄였다.

매년 300~4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지역 한 문중 장학재단 역시 지난해 이자 등 수익 악화로 장학금 지급액을 8000만원 이상 줄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재단의 기금 운용 방식이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재단은 출연한 재산(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의 이자수익만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한다. 여건상 주식이나 펀드 등에 별도 투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자율이 오르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제로금리까지 예

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실정이고 보면 매년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관련 장학재단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경우 영속성이나 신뢰성이 생명인 장학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만회하기 위해 출연금을 늘리고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방안을 찾는 방법도 강구하고는 있지만 원금 손실 우려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학재단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재단의 운영난을 방치했다가는 지원받는 학생 급감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사회양극화는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창사이래 첫 300만대 판매 돌파

**K3·스포티지R 등 인기
전년보다 7.6% 증가**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연간 판매실적 300만대를 돌파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300만대 고지를 넘었다.

기아차는 4일 지난 한해 동안 국내에서 46만5200대, 해외에서 257만6496대를 팔아 전년보다 7.6% 증가한 304만169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형시장의 경제 위기와 엔저 심화 등 악조건을 뚫고 기아차는 올 뉴 카니발과 올 뉴 쏘렌토 등 신차와 모닝, K3, K5, 스포티지R 등의 주력차종들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아차 차종중에서는 국내에서 4만9303대, 해외에서 43만2364대 등 48만1667대가 판매된 K3(포르테 포함)가 베

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이어 광주공장의 주력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R(43만3000대)과 프라이드(40만2000대), K5(33만8000대), 모닝(25만6000대)이 뒤를 이었다.

내수시장에서는 캠핑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미니밴 수요가 급증하며 레저용차량(RV) 판매가 전년보다 16.6% 늘어났는데 힘입어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특히 광주 3공장 증산 협의회 생산량이 늘어난 봉고 트럭은 전년보다 7.2% 성장한 5만5107대가 팔리며 출시 이래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시장에서는 국내공장 생산분 124만1450대, 해외공장 생산분 133만5046대 등 전년보다 8.7% 늘어난 257만6496대가 판매되며 기아차의 전체 판매산장을 주도했다.

임동률기자txian@

주간 증시 포커스

대내외 변수 많아 '박스피' 탈출 미지수

은행·건설·반도체·IT업종 유망

올해 첫 날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다. 한 해를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10.84포인트(0.57%) 오른 1926.44포인트로 산뜻한 출발을 하였다. '청양(靑羊)'해에는 양에 활동적인 모습이 더해져 박스피(코스피지수의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탈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국내증시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장미빛 전망을 기대 했지만, 미국 양적완화 종료 시점에 따른 불안감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는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약화 우려감으로 투자심리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본격적인 경제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미국과 ECB(유럽중앙은행)의 통화공급 확대, 중국의 기준금리인하 및 후강통 실시, 일본 아베총리 재선임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가속화 등 주요국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통해 글로벌 지수 상승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적 변수는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스 정국 불안정과 국제유가 하락세에 따른 러시아 등 신흥국 우려가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는 이달 25일 조기총선을 시행하는 데 최악의 경우 급진좌파 시리자(제1야당 후보)가 집권당이 될 경우 부채 탕감 및 긴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 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유럽과 주요 신흥국의 경기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글로벌 주식시장의 희비가 교차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자금이 언제부터 국내증시에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지 여부이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며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처럼 외국인 이 한국증시에 냉랭한 투자가 이어진다면 박스피 탈피는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정부의 배당투자 활성화 및 세제·금융지원에 대한 규제완화 등 고강도 경제정책을 시사한점과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투자심리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어 보인다. 이번주 투자전략으로 국내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은행 건설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IT와 반도체는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돼 눈여겨 볼만한 업종이다. 또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배당 성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목 및 중공 자본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에 인한 수혜 업종에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김경신 <우리투자증권 수완지점 부장>

원산지표시 우수 전통시장

양동시장 2년 연속 선정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지원장 구동희)은 본원 주관으로 지난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123개 양해각서(MOU) 체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동시장은 상인회(대표 김영목)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했고, 농관원 소속 농산물 명예감사원이 매월 2회 이상 원산지 홍보 물과 원산지 풋말 등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한 결과 우수 전통시장으로 재선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시무식

광주은행은 지난 2일 동구 대인동 본점 강당에서 김한 은행장을 비롯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시무식을 열었다. 김한 은행장은 시무식에서 영업력 제고와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은행장은 특히 2015년을 광주은행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유한 '최고의 소매전문은행'으로 새롭게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시민 10명중 6명 "올해도 아파트값 오를것"

사랑방부동산 설문

수완지구 가장 선호

광주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도 광주의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4일 사랑방부동산(srbhome.co.kr)에 따르면 최근 광주 시민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가 올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측한 시민 중 61%는 '소폭 상승'에 무게를 뒀다. 나머지

39%는 '2011년 수준으로 2000년~4000만원가량 대폭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합세'나 '소폭 하락'은 각각 17%의 응답자가 선택해 뒤를 이었다. 반면 '거품이 빠지고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7%로 가장 적었다.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가운데 46%는 '2016년 이후'를 꼽았고 33%는 '최대한 빨리'를 선택했다. '2016년 이후'에 응답자 절반이 몰린 것은 올해 2만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입주 예정에 있어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2015년 하반기'가

14%, '2015년 상반기' 7%로 집계됐다.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광산구 수완지구'를 꼽은 시민이 가장 많았다. 수완지구는 전체 응답자의 27%가 살고 싶은 동네라고 답했고, 2위는 '남구 진월·봉선지구(20%)'였다. '서구 금호지구(12%)', '북구 일곡·용봉·문흥지구(10%)', '서구 상무지구(10%)' 등이 10% 안팎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교통·편의시설(49%)'이 차지했다. '학교(17%)', '친환경적인 입지여건(11%)', '가격(11%)'이 뒤를 이었다.

임동률기자txian@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2 4 23 31 34	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919,853,532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6,809,472	46
3 5개 숫자일치	1,559,210	1,676
4 4개 숫자일치	50,000	85,710
5 3개 숫자일치	5,000	1,491,785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목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완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완지구 4층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완지구 4층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역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1. 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2. 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3. 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픈)

- 1 기본 경매 강의
- 2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1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3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4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5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6 광산구 월곡동 (토 208㎡, 건 250㎡) 감평가 1억4천3백 최저가 1억4천3백
- 7 북구 두암동 (토 198㎡, 건 512㎡) 감평가 3억9천8백 최저가 2억9천8백
- 8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9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토지

- 1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최저 41억(1,170평)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 1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평가 16억2천 최저가 11억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